

tvN 드라마스태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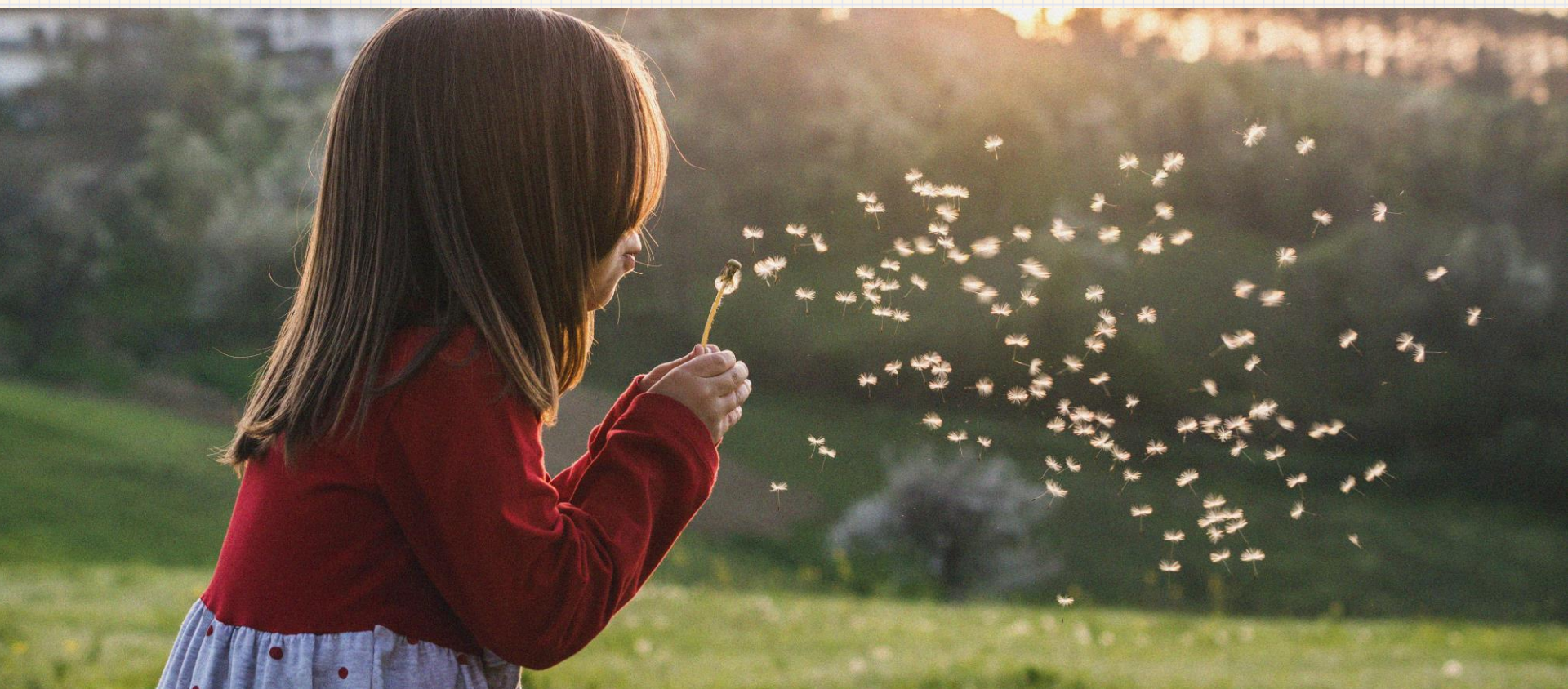
2시 15분

연출 | 정세령

극본 | 박연옥

제작 | 스튜디오 커밍순

편성 | tvN 6월 방송 예정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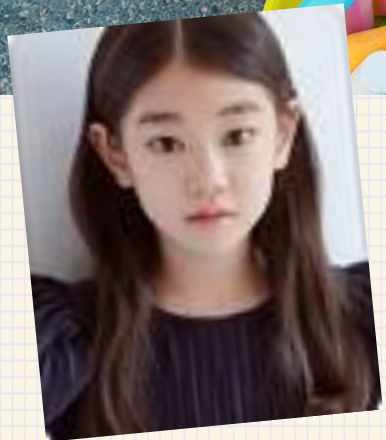
I 빛을 잃은 누군가에게,

삶의 한 귀퉁이나마 별이 드는 구석도 있다고 알게 할 수 있는 건 무얼까.
어떤 크나큰 힘만이 그를 별으로 나오게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 사회적 제도가, 법이 잠시 희망을 맛보게 했다가,
다시 그들로 밀어 넣어 더한 절망을 주기도 한다.
그들이 못한 구원을 아이가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그야말로 **동화 같은 상상**을 해본다.

I 어느 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일곱 살 아이를 찾아온 열 살 아이.

그들이 만나는 시간, 2시 15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단 10분.
그들의 따뜻한 10분이, 어떻게 차갑고 높은 벽을 깨게 하는지의 이야기다.
시멘트 틈에 피어난 꽃에게 한 줌 흙이 되어주고, 시멘트의 균열이 되어주는,
한 편의 동화다.

캐스팅



박소이
임현수 역 (여, 10세, 초등학교 3학년)

엘리트주의, 성과 중심의 솔로맘 아래 집, 학원, 과제에 짓눌려 생기를 잃은 아이. 스스로 어른이 된 현수는 답답한 마음에 들른 빈 동네에서 포도알처럼 까만 눈동자를 가진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기소유
조민하 역 (여, 7세)

왜소한 몸집에 유독 까만 눈동자가 튼다. 유치원도 다니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동네 넓은 집에 갇혀 지낸다. 무관심한 엄마와 무서운 아빠 사이에서, 언제나 민하의 자리는 방구석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언니가 거짓말처럼 찾아왔다.